여래의 사성제라야 '제일의' 지혜

〈第一義〉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⑳ 사성제(四聖諦)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연각이 처음으로 성스러운 진리(聖諦)를 관찰하고는 한 지혜로 모든 주지(住地)를 끊습니다. 한 지혜로 네 가지를 끊음으로써 공덕을 증득할 줄을 알고, 또 이 네 가지 진실한 법(四法)의 뜻은 잘 압니다. 세존이시여, 출세간의 상상지(上上智)는 없고 네 가지 지혜가 점점 나아갈 것이 없으며, 네 가지 조건(四緣)이 점점 나아가는 것이 없으니, 점점 나아감이 없는 법이 곧 출세간의 상상지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금강으로 비유하는 것은 곧 제일의(第一義)의 지혜이나,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연각으로서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성제(聖諦)를 처음 본 지혜는 제일의의 지혜가 아니니, 세존이시여, 둘이 없는 성제를 아는 지혜로써 모든 주지를 다 끊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응·등정각은 성문·연각의 경계가 아니니, 불가사의한 공의 지혜(不思議空智)로써 온갖 번뇌의 장애를(煩惱藏)을 끊어버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일체 번뇌의 장애를 끊으면 곧 최후의 완성된 지혜(究竟智)가 되나니, 이것을 가장 으뜸가는 지혜(第一義智)라 합니다. 처음으로 성제를 안 지혜는 최후의 완성된 지혜가 아니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향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성(聖)의 의미는 성문·연각의 경계가 아닙니다. 성문·연각은 한정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성문·연각은 부분적인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이름을 성인이라 하나 성스러운 진리(聖諦)라 하는 것은 성문·연각의 법이 아니며, 성문·연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리는 여래·응·등정각께서 처음으로 깨달아 아시고, 그 후에 무명의 껍데기에 가려 있는 세간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시고 연설하셨으므로 성스러운 진리(聖諦)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없이 성스러운 진리'는 불교의 근본 교리라 할 수 있는 사성제(四聖諦)를 두고 한 말이다. 〈승만경〉에서는 성문과 연각의 사성제는 무명주지의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의 지혜가 되지 못한다 하였다. 여래의 사성제라야 출세간의 상상지(上上智)가 되며, 제일의 지혜가 된다 하였다.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사성제를 닦아 번뇌를 끊어가는 이승들의 수행이 여래의 경지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성제가 단순한 하나의 교리해설이 아니라 번뇌를 없애는 수행의 실천요목으로, 사성제를 닦음으로써 번뇌를 끊는다는 것이다.

사성제는 인간의 인식과 수행이 깨달음으로 향할 때 나타나는 인과를 밝힌 교설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직시하여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부처님 최초의 설법이 사성제인데,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의 두 가지 면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을 가지고 말하면 고(苦)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고성제(苦聖諦)이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왜, 괴로움인가?' 하는 원인을 밝힌 것이 집성제(集聖諦)이다. 모든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 번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고 죽는 생사의 원인마저 번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번뇌 때문에 태어나고 번뇌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중생이 윤회를 하게 되는 것도 번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苦)의 결과와 그 원인을 유루경계에서 밝혀 놓은 것이다. 다음 멸성제(滅聖諦)와 도성제(道聖諦)는 무루경계의 인과관계다. 괴로움이 소멸되어 고요해진 것을 열반이라 하여 올바른 인식과 수행을 통해 열반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열반을 얻기 위하여 실천하는 방법이 도성제이다. 여기에 주로 팔정도(八正道)가 제시된다. 열반을 얻는 원인으로 팔정도가 제시되지만 결국은 번뇌를 끊는 것이다. 이 번뇌를 끊는 정도가 매우 심오하여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에서는 상상지(上上智)를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상상지(上上智)란 가장 뛰어난 지혜로 하지(下智), 중지(中智), 상지(上智)보다 더 높은 지혜를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쉼 없는 염불 수행으로 '싸띠힘' 키워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㊸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싸띠 수행을 통해 마음을 주의집중하게 단련시키면 마음은 정화되어 탐진치 삼독심 등의 오염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진여본성으로 되돌려 청정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싸띠의 힘이 강해지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삼독심 등의 오염심과 내면에서 생겨나는 번뇌 망상들을 막아서 항상 진여본성과 계합시켜 본래 청정심을 유지시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염불을 통해 싸띠의 힘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피곤하거나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마음 전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싸띠가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순간 눈·귀·코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 대상을 접촉을 할 때마다 마음의 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집중' 하는 싸띠의 힘이 약하게 되면 발생하는 마음작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발생하는 마음작용을 싸띠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의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각 기관이 감각 대상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마음 작용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접촉 다음에 생겨나는 마음이 맑고 가벼우면 행복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둡고 무겁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접촉 다음에 발생하는 마음의 느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싸띠는 접촉 다음에 생겨나는 마음 작용에 관여하여 마음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듭니다. 이처럼 싸띠는 마음의 밝고 어두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 싸띠[念]를 잘 훈련시켜서 마음의 본래 청정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싸띠가 대상을 향해 집중하면 싸띠가 집중되는 곳으로 텔레파시라고 부르는 뇌파가 함께 집중됩니다. 이때 싸띠 힘[念力]의 크기에 따라 텔레파시 힘도 함께 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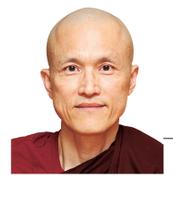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싸띠가 집중되는 곳으로 마음에 저장된 기억들도 함께 집중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기억 이미지들의 양과 질에 따라 마음을 가공 편집하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심리현상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을 통해 싸띠[念]의 힘이 커져 일심상태가 이루어지면 삼매 속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 가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매가 더욱 깊어져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자대비를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구세력과 본원력을 믿으며, 보살이 갖추신 공덕과 지혜를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한 염불수행을 끝없이 실천하여 싸띠힘을 키워서 불과를 증득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다음은 염불에서의 '불(佛)'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불(佛)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및 팔리어로 붓다(buddha)를 우리말로 음역한 말입니다. 붓다의 뜻은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佛)은 일체법(一切法), 즉 우주 만법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서 다할 수 없는 진리를 체득한 대성자(大聖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佛)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自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닫게[覺他] 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佛)에게는 깨달음의 능력이 전지전능하고 충만하게 갖춰져 있다[覺行圓滿]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⑳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①

"오온(五蘊)은 내가 아니다"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물질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느낌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지각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형성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

수행을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어떤 것을 알아내는 것'이나, '마음을 밝히는 것'으로 삼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가르침을 설하신다. 진리는 숨길 필요가 없어서, 평상시 주고받고, 문답하는 말씀 그대로다. 거창한 지식이나 학문적인 견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수행은 어렵게 느껴질까? 그것은 수행자가 반드시 새겨야 할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다.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되어있지 못하면, 많은 시간 동안 좌선을 하고, 학문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더라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야심경〉에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五蘊)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라는 구절을 상기해 보자. 스님이든 불자든 예불 시간에 수없이 독송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입으로만 글자를 따라 읽고, 표면적인 의미를 새기는 것에 만족한다. "오온은 공한 거구나" 하고 언어가 가리키는 뜻만 이해하고 말았을 뿐, 오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불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의 깊이를 다하지 못하고 소모된다는 것이. 수박을 맛보지도 못하고 겉만 핥고서 수박 맛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다.

수행을 지어갈 때, 공(空)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을 내가 고요해야 하고, 아무것도 나타나면 안 되고, 텅 비어야 하고, 성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여 수행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공(空)이라는 말 때문에 성찰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空)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은 "오온은 내가 아니다"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아는 언어로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게 하셨다.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간직하는 것이 고요이고,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간직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고,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간직하는 것이 성성해지는 것인 줄 알면 깊은 성찰을 하는 것이다.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찰로써 알려진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오온이 내가 아니다'를 아는데 무슨 다른 경(經)이 필요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간단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엉뚱한 길만 찾고 있으니,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라는 전도된 자아가 발자국을 만들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발자국을 가만히 따라 가보면, 항상 저절로 '나'라고 되어 있는 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왜 내가 아닌가?'라는 것에 조금씩 의문이 생긴다.

몸을 '나'라고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나'라고 하고 있고,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나의 느낌이라 알고 있고, 생각을 나의 생각이라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나의 생각일 뿐인데, '왜 나의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수행은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오온이 나라는 느낌과 생각과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벗어나면 느낌과 생각과 인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